

자동성 기능동사 구문과 논항의 격 실현 양상*

-여격 주어설 비판을 위하여-

목정수**

|| 차례 ||

- I. 서론
- II. 한국어 타동 구문의 유형론
- III. 한국어 기능동사 구문의 제2 논항의 격 할당:
‘가형 목적어’와 ‘를형 목적어’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자동성 기능동사 구문에서 서술명사에 의해 요구되는 논항들이 어떤 격으로 실현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서술명사 자체는 주어 자리에 놓이는 성분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일반론을 세우는 동시에 서술명사의 주어 논항은 여격어, 즉 여격 주어로 실현되지 않고 일반 주격 주어로 실현됨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조사 ‘이/가’와 ‘을/를’의 본질이 격에 있지 않고 정보구조나 담화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정조사(=후치관사)에 있음을 출발점으로 하여 한국어의 통사구조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주어 개념을 분명히 정립하고 그 밖의 성분들의 통사적 기능을 목적어의 관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어는 ‘를형 목적어’와 ‘가형 목적어’로 쪼개진 타동사 구문 유형을 갖는 언어로 유형 분류된다.

주제어 : 국어학(Korean linguistics), 기술동사(descriptive verb), 목적어(object), 비주격/여격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1842)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어(non-nominative/dative subject), 서술어구(predicate phrase=verb phrase), 서술절(predicate clause), 언어유형론(linguistic typology), 주관동사(psychi/subjective verb), 주어(subject), 타동성(transitivity), 한국어교육(education of Korean), 행위동사(action verb)

I. 서론

1. 문제 제기

한국어의 조사 ‘이/가’는 일반적으로 ‘주어 표지’, ‘주격조사’로, 가끔은 ‘보격조사’로 그 기능이 설정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그 본질 규명이 명확하지 않아 한국어의 정합적인 문장론(=통사론)을 펼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우선 다른 조사 ‘을/를’이나 ‘은/는’과 같이 중첩에 의한 이형태 관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선재하던 ‘이’에 대해 그 형태가 무관한 ‘가’가 이형태(allomorph)로 자리 잡은 사실도 특이하다면 특이하고, 이 ‘가’는 도대체 그 기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문법화 과정으로 ‘가’란 형태를 설명할 것인가가 국어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이다(고광모 2014). 또한 형태·통사적으로 ‘이/가’가 주격조사와 보격조사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소위 서술격조사 ‘이-’가 이른바 주격조사 ‘이/가’의 ‘이’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의(최기용 2001, 우순조 2005)까지 나와 있다는 사실은 다시금 한국어 문법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형태들은 주어를 혹은 보어를 만드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법 장치가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다. 다음 예에서 보듯이, ‘이/가’ 없이도 주어 성분, 보어 성분은 얼마든지 문법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가. 엄마, 아빠 언제 와?

나. 엄마, 저 도서관 가요.

(2) 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나. 내가 대통령 되면 저렇게는 안 한다.

여기에 조사 ‘이/가’가 덧붙는 것은 정보구조에 의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즉, 성분에 초점이 주어지거나 거칠게 말해서 이른바 신정보로서 ‘강조’가 될 때 ‘이/가’가 요구된다. 대조적으로 구정보로 제시될 때는 ‘은/는’이 쓰인다. 이들의 대립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가. 엄마, 아빠가 정말 안 와요?

나. 엄마, 아빠는 언제 오신대요?

(4) 가. 엄마, (나) 대통령이 정녕 될 수 있을까?

나. 엄마, (나) 전무는 되기 어려울 것 같고, 부장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

또한 보조사는 아무 성분이나 붙을 수 있지만, 격조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사 ‘이/가’—‘을/를’을 포함하여—가 격조사라는 논증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목정수 2015b).¹⁾ 예를 들어, 양태부사 ‘아마’는 격

1) 이에 더해 기존에 격조사로 분류한 것 중에서 ‘이/가’와 ‘을/를’만이 소위 활용형 어미나 부사와 결합 가능하다는 것도 격조사 계열에서 ‘이/가’와 ‘을/를’이 다른 부사격조사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에, 로, 와’ 등의 격조사는 나타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이/가’와 ‘을/를’이 부사격조사와 같은 자리에 오는, 즉 동일 계열의 문법요소가 아님을 알려준다. 같은 계열의 격조사류가 아니라는 뜻이다. 더 나아가 인구어의 격 패러다임처럼 꼭 짜여진 격 체계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가’를 주격으로, ‘을/를’을 대격으로 설정할 필요도 없다. 다만, 같은 계열의 구성요소인 ‘이/가’와 ‘을/를’의 분기를 결정하는 요소를 격이 아닌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것이다. ‘를’과 ‘-기를 하-’의 어휘부류·통사적 조건의

조사뿐만 아니라 보조사 ‘은/는’과도 결합할 수 없다. 오로지 보조사 ‘도’하
고만 결합한다.

- (5) 가. 아마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나.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다. *아마는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반면에, 부사 ‘도대체’는 보조사와는 결합할 수 없고, 이른바 격조사 중
에서 ‘이/가’와만 결합한다. 그렇다고 ‘도대체’를 ‘이/가’와 결합한다고 해서
주어로 보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6) 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 *도대체도/는/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수사의문문에서도 성분들은 ‘이/가’나 ‘을/를’로 제약되어 결합하지, 보
조사 ‘은/는’이 붙는 경우는 없다.

- (7) 가. 네가 계맛을 알아? cf. 너는 저 사람 아니?
나. 네가 감히 어딜? cf. 너는 어디 갈 예정이니?
다. 이게 나라냐? cf. 이건 어떤 나라야?

(syntactically conditioned) 이형태 관계에 대해서는 목정수(2003: 349)를 참조하라.

- (1) 가. 낙엽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나. 지난번에 부산으로 놀러를 갔는데...
다. 네가 뭐 돈을 많이 벌기를 하나 뭐 얼굴이 예쁘기를 하나?
라.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지...
마. 빨리를 안 뛰고 뭐 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이상의 논거를 바탕으로 조사 ‘이/가’와 ‘을/를’의 분포를 통합축 (syntagmatic axis)과 계열축(paradigmatic axis)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조사하면, 명사와 결합하는 조사 ‘이/가’와 ‘은/는’은 그 자리가 모두 두 번째 자리(slot)에 놓이는 동일 계열체(paradigm)의 성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닫힌 집합에 속하는 기본 성원은 {이/가, 을/를, 도, 은/는, 의, (이나, 이라도)}이다. 이를 다음 (8)과 같은 입체적 구조로 표상할 수 있다.

- (8) 가. 고양이가 들어왔다. => 고양이- \emptyset_1 -가
- 나. 고양이를 잡았다. => 고양이- \emptyset_1 -를
- 다. 고양이도 먹니? => 고양이- \emptyset_1 -도
- 라. 고양이는 유연하다. => 고양이- \emptyset_1 -는
- 마. 고양이의 눈 => 고양이- \emptyset_1 -의
- 바. 고양이나 잡자. => 고양이- \emptyset_1 -나
- 사. 고양이이라도 잡아와. => 고양이- \emptyset_1 -라도

이러한 명사 확장 구조체에 의해 ‘학교에 가다’와 ‘학교를 가다’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이 구조를 들여다보면, ‘학교에’의 ‘에’와 ‘학교를’의 ‘를’은 계열 관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9) 가. **학교에 가다 => 학교-에- \emptyset_2 가다**
- 나. 학교에를 가다 => 학교-에-를 가다
- 다. 학교에는 가다 => 학교-에-는 가다
- 라. 학교 가다 => 학교- \emptyset_1 - \emptyset_2 가다
- 마. **학교를 가다 => 학교- \emptyset_1 -를 가다**
- 바. 학교는 가다 => 학교- \emptyset_1 -는 가다
- 사. 학교도 가다 => 학교- \emptyset_1 -도 가다

이상의 논거를 종합해 보면, 조사 ‘이/가’는 단순히 주어 표지, (주)격조사 계열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이/가’가 붙은 성분이 주어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더라도 반드시 주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가’는 단순히 문법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는 ‘담화구조’나 ‘정보구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실체라는 점 등이 재인식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다시금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정합적으로 아우르고 담아낼 수 있는 문법체계를 구성해 낼 때 한국어 문법 현상을 일관되게 정합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2. 논의 목적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가’와 ‘을/를’을 격표지로서가 아니라 정보구조에 관여하는 담화적 기능의 한정조사(=후치관사)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 국어학 담론 가운데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이 드러난다. 우리는 이 점에 입각하여 기존의 소위 ‘서술절’ 개념과 ‘여격 주어’ 개념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해 보았다(목정수 2014a, 목정수·이상희 2016). 앞의 논의에서는 서술절 개념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고, 뒤의 논의에서는 한국어에서 여격 주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핵심적인 논제만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두 문장에서의 주어는 각각 밑줄 친 명사구라는 것이고, ‘돈(이) 있다’ 구성은 (10가)에서는 절을 구성하지만 (10나)에서는 서술절이 아니라 서술구(=동사구(VP))라는 것이다. (10나)의 ‘돈(이) 있다’는 ‘돈(을) 벌다’ 구성과 평행하게 서술구라는 것이다. 한정조사 ‘이/가’와 ‘을/를’과의 결합 양상의 차이를 빼고는.

(10) 가. 철수에게/한테 돈이 많이 있다.

나. 철수는 돈이 많이 있다.

(10가)에서 여격 주어는 인정하기 어렵고 여격어 ‘철수에게’는 처소어로 보고 두 번째 명사구 ‘돈이’가 주어 성분이라는 것이다.²⁾ 반면에 소위 이중

2) 이에 대해서 한 심사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었다. “이 논문의 모순은 (10가)의 구문에서 의미적 주어가 통사적 비주어로 실현된 것을 강조하면서도 이른바 ‘서술구’ 구성에서 의미적 비주어가 통사적 주어로 실현되는 양상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10가)의 ‘에게’논항은 의미적으로는 소유주임에도 통사적으로는 주격이 아닌 부사격이 할당되었기 때문에 이 논항은 주어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의미적으로는 목적어인 비대격 구성에서 주격이 부여된 ‘코가 크다’의 ‘코가’를 통사적 주어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주어인 성분의 주어 여부는 의미적 관계나 의미역으로 따진 것이라기보다는 통사적 행태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다. 가령, ‘코끼리는 코가 길다’와 평행성을 유지하는 모든 구성에서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와 호응을 하는 성분을 주어로 규정한 것이고 관계절의 핵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을 주어성이 높은 것으로 본 것이다.

- (1) 가. 나는 눈이 크다.
 나. 할아버지는 눈이 크시다.
 다. 눈은 할아버지가 크시지.

- (2) 가. 눈이 크신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가 크신 눈

주관심리동사 ‘싫다’의 경우도 ‘할아버지가’ 성분이 어느 위치에 오더라도 ‘-시-’와 호응하지 않으면 주어로 분석되지 않는 것이고, 관계절 구성에서도 첫 번째 명사구만이 핵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어 성분으로 분석된다.

- (3) 가. 나는 동생이 싫다.
 나. *나는 할아버지가 싫으시다.
 다. *할아버지는 내가 싫으시다.

- (4) 가. 동생이 싫은 나 (‘동생을 싫어하는 나’라는 의미로)
 나. *내가 싫은 동생 (‘내가 동생을 싫어한다’는 의미로)

주어 구문으로 불리는 (10나)에서 첫 번째 명사구 ‘철수는’이 주어이고 두 번째 명사구 ‘돈이’는 ‘목적어/보어’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목정수·이상희(2016)에서는 ‘-시-’와의 호응/일치, 재귀사 호응, 관계화 등의 테스트를 통하여 한국어에서는 ‘여격 주어’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른바 이중 주어 구문이나 심리동사 구문의 분석을 통하여 소위 서술절이라 했던 것은 ‘서술구’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서술구로 이루어진 연어 구성에서 ‘가형 성분’은 주어로 분석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의 ‘코가 길다’와 마찬가지로 ‘철수는 키가 크다’에서의 ‘키가 크다’나 ‘나는 겁이 났다’에서의 ‘겁이 나다’ 같은 연어 구성에서도 서술명사 ‘키’와 ‘겁’은 주어 자리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후행하는 동사와 결합하여 동사구로서의 연어 구성 단위가 된다는 보편성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이상의 두 가지 주장을 자동성 기능동사³⁾ ‘있다’, ‘나다’, ‘가다/오다’ 등을 통하여 증명하고자 한다. 간략히 말해서 ‘~와 관계(가) 있다’, ‘~가 생각(이) 나다’, ‘~가 이해(가) 가다/되다’, ‘잠(이) 오다’의 기능동사 구문에서 서술명사 ‘관계’, ‘생각’, ‘이해’, ‘잠’ 자체는 전체 문장의 주어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서술명사의 주어 논항은 여격어의 형태로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시 서술명사는 주어가 아닌 목적어/보어 자리에 실현된 것으로 분석해야 함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 가. 철수는 나와 관계가 있다.⁴⁾

3) 여기서 ‘자동성 기능동사’라 한 것은 ‘~를 가지다’, ‘~를 내다’ 같은 ‘타동성 기능동사’와 대립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4) 이 구문은 전체적으로 대칭 구문에 속한다(홍재성 1987). ‘철수와 나는 관계가 있다’

나. *철수에게는 나와 관계가 있다.

(12) 가. 나는 엄마가 생각이 난다.

나. *나에게는 엄마가 생각이 난다.

(13) 가. 나는 그의 설명이 이해가 간다.

나. *나에게 그의 설명이 이해가 간다.

(14) 가. 나는 잠이 안 온다.

나. *나에게 잠이 안 온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일반동사 ‘있다’의 두 가지 구성, 즉 소유 구문에 나타난 [NP가 있다]는 동사구를 형성할 수 있지만, 존재 구문에서의 [NP가 있다]는 동사구가 아닌 문장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⁵⁾

형식의 구문으로 환언될 수 있다. 따라서 *철수와 나에게 관계가 있다가 비문이듯이, *철수에게는 나와 관계가 있다도 비문이다. 한 심사위원의 지적으로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12나~14나)에서 여격어에 보조사 ‘는’이 첨가되면 문법성이 나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즉 *나에게는 잠이 왔다나 *잠은 나에게 왔다’는 여전히 비문법적인 구성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 본고는 한국어 동사 ‘있다’를 존재동사로서의 ‘있다’와 소유동사로서의 ‘있다’로 나누어 보는 입장을 취한다. 한국어 동사 ‘있다’는 존재동사 ‘be’ 계열과 소유동사 ‘have’ 계열로 쪼개져 있다는 것이다. 인구어에서도 ‘have’ 계열의 동사가 존재 구문에 사용된다는 것은 한국어의 존재동사 ‘있다’가 소유 구문에 사용되어 동사 ‘있다’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다음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의 예에서 보듯이, 비인칭 구문, 외치 구문, 도입/제시 구문에서 ‘한정성 효과(definiteness effect)’가 나타나는데, 모두 다 ‘have’ 계열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통사적 특징으로는 부정 관사와 결합하여 신정보를 나타내는 성분이 동사 뒤에(post-verbal) 위치한다는 것이다. 몇몇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 Il y a un/*le livre sur la table. (책상 위에는 책이 있다.) (<= ‘avoir’)
 나. Delante de la escuela hay una/*la cafetería. (학교 앞에는 카페가 있다.)

(15) 가. 철수는 엄청난 집이 있다. => [집이 있다] = 구 구성

(<= 'haber')

다. Em cima da mesa **há** um/*o livro. (책상 위에는 책이 있다.) (<= 'haver')

참고로 브라질에서는 'há' 대신에 'ter' 동사의 3인칭 단수형 'tem'이 존재문에 쓰인다 고 한다. 이는 소유동사와 존재동사의 상관성을 보여준다.

(2) 가. Não **tem** ninguém lá. (거기에는 아무도 없다.) (<= 'ter')

나. No quintal **tem** muitas árvores. (뒤뜰에는 많은 나무가 있다.

= 나무가 많다) (<= 'ter')

다. Não **há** nada de novo.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 'haver')

라. Na frente da casa **há** um jardim cheio de flores.

(집 앞에는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 있다.) (<= 'haver')

일반적으로 포르투갈어에서 'ter' 동사는 스페인어의 'tener'와 같이 프랑스어의 소유 동사 'avoir'의 용법을 대신한다.

(3) 가. **Tenho** prova hoje. (나는 오늘 시험이 있다.) <= 'ter'

나. **Tenho** dor de cabeça. (나는 머리가 아프다.) <= 'ter'

다. **Tengo** veinte años. (나는 20살이다.) <= 'tener'

라. **Tengo** dolor de estômago. (나는 배가 아프다.) <= 'tener'

마. **J'ai** faim. (나는 배가 고프다.) <= 'avoir'

바. **J'ai** mal à la tête. (나는 머리가 아프다.) <= 'avoir'

중국어의 '有(yǒu)'도 소유동사로서 존재동사의 용법을 가지고 있다.

(4) 가. 我只有你. (나(는) 너밖에 없어.) <= 소유동사 '有'

나. 這兒有公用電話嗎? (여기에 공중전화가 있습니까?) <= 존재동사 '有'

그리고 한국어의 'N₁-에/에게(는) N₂-가 있다'의 존재 구문과 'N₁-은 N₂-가 있다'의 소유 구문에서의 존재형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사전 기술에서 '있다₁'과 '있다₂'로 분할 배열(dégrouper)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성분이 주어로 분석된다.

(5) 가. 저에게는 이모가 두 분 계십니다/*있으십니다.

나. 저에게는 이모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없으십니다.

나. 철수에게 그렇게 큰 집이 있을까? => [집이 있다] = 절 구성

존대형이 ‘소유 구문’에서는 ‘있으시다’로 대응되고, ‘존재 구문’에서는 ‘계시다’로 대응된다는 점도 서술명사가 주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계시다’는 나타날 수 없고 서술명사의 주어 논항의 [+존대] 자질에 따라 ‘있으시다’만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16) 가. 할아버지(께서)는 그 사업과 관계가 있으신/*계신 것 같다.

나. 할아버지(께서)는 그 사업과 관계가 없으신/*안 계신 것 같다.

본고는 한국어의 타동 구문이 두 가지 종류로 대별되어 대칭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기능동사 구문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목정수(2015a)에서는 한국어의 타동 구문(transitive construction)의 유형은 거시적으로는 두 가지, 미시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이를 세계 언어유형론 학계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다음이 세 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타동 구문이다.

(17) 제1유형: 철수는 영화를 끌어안았다.

제2유형: 코끼리는 코가 길다.

제3유형: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다. 저는 이모가 두 분 있습니다/??계십니다/*있으십니다.

라. 저는 이모가 한 분도 없습니까/??안 계십니까/*없으십니다.

(6) 가. 할아버지께서는 귀한 책이 몇 권 있습니다/*있으십니다/*계십니다.

나. 할아버지께서는 귀한 책이 한 권도 없습니까/*?없으십니다/*안 계십니다.

다. 할아버지(께서)는 귀한 책이 몇 권 있으십니까/*?있으십니다/*계십니다.

라. 할아버지(께서)는 귀한 책이 한 권도 없으십니까/*?없으십니다/*안 계십니다.

이러한 구문들을 타동성 유형론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의 타동 구문은 ‘를형 목적어’와 ‘가형 목적어’ 구문으로 나뉘어지는, 이른바 ‘쪼개진 목적어(split-O)’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기술할 수 있다.⁶⁾ 따라서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주격-대격(nominative-accusative)’ 언어이지만, 목적어(O)가 들로 쪼개진 하위유형(sub-type)을 가지고 있는 언어로 규정할 수 있다.⁷⁾ 이러한 모습은 세계 유형론 학계의 타동성 논의에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더 탄탄하게 입증하기 위해 본고는 두 종류의 타동사 구문이 기능동사 구문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을 몇몇 예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두 종류의 타동 구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더 분명히 보여주고 유형론 학계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기능동사 구문은 다음과 같다.

6) 본고에서 제안하는 ‘가형 목적어’에 반감을 갖는 분들은 ‘보어’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듯하다. 타동성 연속체의 관점에서 보면, ‘를형 목적어’ 구문을 ‘강한 타동성 구문’으로, ‘가형 목적어’ 구문을 ‘약한 타동성 구문’으로 볼 수도 있겠다(Næss 2007).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가형 성분’이 결코 주어로 분석될 수 없다는 흔들림 없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도 이러한 면면은 분명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어 문장 교육이 제대로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7) 기존 유형론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미 범주인 타동사의 A(gent), P(atient), 그리고 자동사의 S(subject)가 부호화되는 방식이나 정렬(alignment), 즉 격 표시 체계에 따라 ‘nominative-accusative’, ‘ergative-absolutive’, ‘active-inactive’, ‘tripartite’, ‘neutral’, ‘focus’, ‘direct-inverse’ 패턴으로 나누고 있다. 이 분류 방식은 한국어의 타동성 타입을 포함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독특한 타동성 유형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형 분류에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기존 유형을 하위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주격)-대격’ 유형의 언어이지 ‘능격-(절대격)’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의 타동성 타입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후자의 방식, 즉 기존 유형 분류를 유지하되 하위분류를 추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쪼개진 목적어(split-O)’ 패턴만 따로 설정하기로 한 것이다.

- (18) 제1유형: 철수는 영어를 연구(를) 했다.
 제2유형: 코끼리는 자기 새끼가 생각(이) 낫다.
 제3유형: 나는 그 말이 이해(가) 간다.

II. 한국어 타동 구문의 유형론

최근 국어학계에서는 해묵은 논쟁거리인 조사 ‘가, 를, (의)’의 문법적 지위 문제가 담화구조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다. 기존 조사 체계를 해체하여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다. ‘격조사’와 ‘정보구조’를 논하고 있는 논의에서도 격조사는 부사격조사가 아닌 조사 ‘이/가’와 ‘을/를’에 국한된다는 점에서도(김민국 2016),⁸⁾ ‘이/가’와 ‘을/를’의 본질이 격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최근 박진호(2016)에서는 조사 ‘의’에서 ‘이/가’로의 발달 과정을 통하여 한국어 주격조사의 기원을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 논의 과정에서 조사 ‘이/가’의 본질이 정보구조와 관련된 신정보 표지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목정수(2015b)에서는 융합의 관점에서 조사 ‘이/가’와 ‘을/를’을 담화 기능을 하는 문법요소로 재정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어문법에서는 국어 문장 성분 가운데 ‘주어’, ‘목적어’ 등의 필수 성분을 표시하는 장치로서 ‘이/가’와 ‘을/를’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성분 생략을 논하고 있다. 모순적인 진술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모순은 ‘이/가’를 단순히 주격조

8) 김민국(2016)에서처럼, ‘이/가’와 ‘을/를’의 본질을 격조사에서 찾고 있는 논의에서는 ‘이/가’와 ‘을/를’의 정보구조상의 초점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격조사와 정보구조의 상관성을 논의하는 답론을 재생산하게 된다. 이 답론 구조에서 다른 격조사들, 즉 부사격조사들은 논의 대상이 아니고, ‘이/가’와 ‘을/를’이 소위 보조사인 ‘은/는’과 ‘도’와의 관계에서 초점(focus), 주제(topic)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사, 주어 표지로 보고 있는 데서 나온다. 따라서 ‘이/가’와 ‘을/를’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앞서 언급한 모순적 진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사 ‘이/가’와 ‘을/를’을 단순히 격조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들이 붙은 성분의 문법관계, 즉 통사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아니 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가’가 붙어 있다고 무조건 주어이고 ‘을/를’이 붙어 있다고 무조건 목적어라고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⁹⁾

9) 중국인 학습자가 보여주는 조사 사용의 오류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치 않다. 실례로 필자의 지도학생이었던 왕몽합이란 학생이 보낸 메일을 살펴보자. [NP-가 생각(이)나다] 구성에서 ‘NP’가 성분을 빈어(=목적어)에 대응된다고 생각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간섭에 의해 [NP-를 생각(이)나다] 구성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힘든 일이 기억하다’처럼 [NP-가 생각(을)하다]의 오류적 구성도 사용되고 있다.

(1) 유학생들을 보면 자주 제 유학생활을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힘든 일이 거의 다 기억 안하고 재미있는 일만 기억합니다. 특히 지난번의 우리 국어국문학과 MT로 제주도에 가는 여행을 자주 생각합니다.



- (19) 가. 짜장면이 먹고 싶어 죽겠어요. ('짜장면이' => 주어가 아닌 목적어)
 나. 너 말이야 우리 할머니를 예쁘시다고 보는 거야?
 ('할머니를' => 목적어가 아닌 주어)

여기서 우리는 생성문법 계열의 전통적인 설명 방식, 즉 (19가)의 '짜장면이 먹고 싶어 죽겠어요'의 '짜장면이'는 목적어가 주격으로 실현된 예이기는 하나 이는 전형적인 인상(raising) 구문으로서 '싶다'라는 주어 인상 구문의 형용사가 보조형용사로 참가하였기 때문에 하위절의 목적어 '짜장면'이 상위문의 주어 위치로 이동하여 주격을 받아 '짜장면이'로 실현된 예로 설명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려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싶다'라는 보조형용사를 상위문의 모문동사(matrix verb)로 보았을 때, 이 '싶다'의 논항구조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본고에서는 '먹고 싶다' 구성에서 '먹다'를 본동사(main verb)로 보고 '-고 싶다'는 '바람(desiderative)'의 인식 양태 표현의 문법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가고 싶어'/'가고 싶으면'이 '가고파'/'가고프면'의 문법화된 형태로도 나타난다. 따라서 '짜장면이'라는 성분은 '먹다'의 논항구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본동사인 타동사 '보다/뵈다'의 목적어 자리에 실현된 존대 자질의 성분 '할아버지'는 '을/를'로 실현되든 상위문의 주어 위치로 이동하여 주격을 받아 '이/가'로 실현된 것으로 분석하든 '-시-'와 호응될 수 없다.

- (20) 가. (저는) 할아버지를 보고/뵈고 싶습니다.
 나. (저는) 할아버지가 보고/뵈고 싶습니다.
 다. *(저는) 할아버지가 보고/뵈고 싶으십니다.
 라. (저) 할아버지는 많이 보고/뵈고 싶지만 참고 지낼 수밖에 없어요.
 마. *할아버지는 많이 보시고/뵈시고 싶으시지만 저 그냥 참고 지낼

래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성분이 ‘할아버지를’의 목적어가 주제화된 것인지, 주어 ‘할아버지가’가 주제화된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주어 인상과 주제화의 단계를 밟은 것인지를 분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주어 인상’ 분석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조사 없이 실현된 ‘할아버지’ 성분이 목적격조사가 생략된 것인지 주격조사가 생략된 것인지 원리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21가, 나) ‘할아버지가’는 주어로, ‘할아버지를’은 목적어로 분석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조사 ‘이/가’와 ‘을/를’의 유무에 관계없이 (21다, 라, 마)에서처럼 ‘-시-’와의 호응을 보면 평행한 모습을 보여준다.

- (21) 가. (저) 할아버지(를/ \emptyset_2) 보고 싶습니다.
 나. (저) 할아버지(가/ \emptyset_2) 보고 싶습니다.
 다. *(저) 할아버지(가/ \emptyset_2) 보고 싶습니다.
 라. (저) 할아버지(는/ \emptyset_2) 많이 보고 싶지만 참고 지낼 수밖에 없어요.
 마. *할아버지(는/ \emptyset_2) 많이 보시고 싶으시지만 저 그냥 참고 지낼래요.

(19나)도 하위문의 서술어 ‘예쁘다’의 주어 ‘할머니가’가 상위문의 모문 동사 ‘보다’의 목적어 위치로 이동하여 목적격조사를 받아 ‘할머니를’로 실현된 구문으로 보지 않고 ‘-고’ 보문절의 주어 논항으로 실현되어 보문절 영역 안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할머니를’을 여전히 보문의 서술어 ‘예쁘다’의 주어 논항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와의 호응에 기반하고 있다. ‘는’에 의한 주제화 성분도 ‘-시-’와의 호응을 보면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

- (22) 가. 나 우리 할머니가 우리동네에서 제일 예쁘시다고 봐.
 나. 그렇다면 너 우리 할머니를 제일 예쁘시다고 보는 거지?
 다. 우리 할머니는 젊으셨을 때 무척 예쁘셨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

이상에서와 같은 논거를 통해서 우리는 ‘짜장면이 먹고 싶다’와 ‘할머니를 예쁘시다고 보다’에서 ‘짜장면이’와 ‘할머니를’ 성분이 의미적으로는 각각 내포문 서술어 ‘먹다’의 목적어와 ‘예쁘다’의 주어이지만 통사적으로는 모문 서술어 ‘싶다’의 주어와 ‘보다’의 목적어로 실현된 것으로 보는 전통적 입장을 따르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모문 서술어 ‘싶다’와 ‘보다’의 의미가 목적어 논항이 실현될 때 ‘이/가’와 ‘을/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짜장면이 먹(고 싶다)’의 관계에서 ‘짜장면이’를 ‘먹다’의 목적어로 분석하려는 것이고, ‘할머니를 예쁘시다-(고 보다)’의 관계에서 ‘할머니를’을 ‘예쁘다’의 주어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타동사 ‘보다’의 목적어 자리를 ‘할머니를’이란 명사구 성분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어 자리에 보문이 온다고 보는 것이다.¹⁰⁾

10) 이는 ‘think’나 ‘see’가 목적어 자리에 ‘that 보문절’을 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 (1) I think that she is pretty.
 (2) You see that he does not love me.

- (23) 가. [할머니가 예쁘시다]-(고 보다)
 나. [할머니를 예쁘시다]-(고 보다)
 다. [할머니도 예쁘시다]-(고 보다)
 라. [할머니는 예쁘시다]-(고 보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가형 성분’은 주어로 분석되기 어렵다. ‘받다’나 ‘먹다’의 행위성 자질을 보건대, 이와 연결되는 ‘가형 성분’을 이 동사의 주어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목적어 성분으로 분석한다.¹¹⁾

- (24) 가. 정말 열이/을 확 받는 거야. 그래서 확 욕을 해 줬지.
 (‘열이’ => 주어가 아닌 목적어)
 나. 그 자식 정말 나이가/를 먹더니 정말 이상하게 변하더라구.
 (‘나이가’ => 주어가 아닌 목적어)

11) 한 심사자가 본고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했다. 이 대안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함께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또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열이 받다’와 ‘나이가 먹더니’에서의 ‘열이’와 ‘나이가’는 ‘받다’, ‘먹다’의 의미 변화, 논항 변화에 따른 격실현의 변화이지 ‘열이, 나이가’가 목적어의 용법으로 사용된 사례라고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사과가 벌레를 먹었다’ 구문은 ‘벌레가 사과를 먹었다’ 구문과의 혼동을 거쳐 ‘사과가 벌레가 먹었다’로 재어휘화하면서 논항의 변화를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중주어 구문의 ‘먹다’ 구문을 이루게 된 예이다. ‘받다’나 ‘나이가 먹다’의 경우도 이러한 예로 볼 수 있다. 즉 ‘열이 받다’는 ‘열을 받다’와 ‘열이 나다’ 구성의 뒤섞임현상에 따라 ‘열이 받다’로 재어휘화한 것으로, ‘나이가 먹다’는 ‘나이를 먹다’와 ‘나이가 들다’ 구성의 뒤섞임현상에 따라 ‘나이가 먹다’로 재어휘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어지는 언급에서 밑줄 친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술이 받는다’ 등의 구성과 함께 재어휘화의 사례로 평가될 예들인데 이를 단순한 통사적 과정만을 고려하여 동일한 ‘열이, 나이가’ 등이 목적어임에도 주어로 실현된 사례라고 강조하기에는 이들의 예외성이 너무 강하다. 이러한 예외성을 넘는 보편적인 특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논문에서 말하는 ‘용변적인 주장’은 설득력있는 이론으로 자리잡기 어렵다.” 그 이유는 ‘열이 받다’, ‘나이가 먹다’에서 ‘이/가’로 실현되었지만 이들을 주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본고의 핵심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주어가 아니라면 목적어 또는 보어로 보자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 점 양해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현상을 감안하고 있는 본고에서는 다음 (25)의 문장을 모두 타동 구문, 즉 논항이 두 개 실현된 타동 구문으로 보고자 한다. 복합서술어 (complex predicate) ‘생각(이) 나다’, ‘이해(가) 가다’의 논항이 두 개라는 것이다. 가령, (25나)에서 명시적으로 ‘김 선생님은’이라는 성분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누구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당당한 하나의 논항으로 볼 수 있고 ‘제 설명이’가 다른 논항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 (25) 가. 너만 보면 난 네 할아버지가 생각이 난단다.
 나. 김 선생님, 제 설명이 이해가 가십니까?

‘생각이 나다’나 ‘이해가 가다’의 구문에서 논항을 요구하는 힘은 서술명사(predicative noun) ‘생각’이나 ‘이해’에서 나온다. ‘생각’과 ‘이해’는 행위의 실현을 위해 주체(subject)와 객체(object)를 요구하는 두 자리(two-place) 서술어이다. 이를 술어 논리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26) 가. $T(x, y)$ T =thinking(생각), x =[+human], y =[+/-human]
 나. $U(x, y)$ U =understanding(이해), x =[+human], y =[+/-human]

위의 (25가)의 예문에서 ‘생각’의 주체로는 ‘난’이란 성분이, 객체로는 ‘네 할아버지가’라는 성분이 논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의미적 논항 관계에서 객체 성분이 조사 ‘이/가’로 실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학교문법식의 관점이라면, ‘생각이 나다’도 주술관계로서 ‘생각이’를 (소)주어로 보게 되고 ‘네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다]’도 주술관계, 즉 서술절을 내포한 주술 관계로서 ‘네 할아버지가’를

(대)주어로 보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본고의 관점은 다르다. 우선 목정수(2014a)를 통해 밝혀진 ‘서술절’ 개념의 부당성을 통하여, ‘가형 성분’이 곧바로 주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조사 ‘이/가’는 정보구조의 논리로 움직인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보면, ‘생각(이) 나다’라는 기능동사 구문, 즉 복합서술어 구조에서의 서술명사 ‘생각이’는 주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서술명사 ‘생각’ 또는 복합서술어 ‘생각(이) 나다’의 객체 논항인 ‘네 할아버지가’ 또한 주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 객체 논항 ‘네 할아버지가’ 성분을 우리는 ‘가형 목적어’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25)의 문장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27) 가. [나는 [할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주어 가형목적어 서술명사 기능동사

나. [김 선생님은 [제 설명이 [이해가 가십니까]]?
 주어 가형목적어 서술명사 기능동사

이러한 기능동사 구문은 전형적으로 타동 구문으로 처리되어 오던 다음의 기능동사 구문과 대비된다.

(28) 가. 나는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
 나. 저는 그 말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28)의 문장 분석도 (27)과 평행하게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29) 가. [나는 [할아버지를 [생각 하고 있다]].
 주어 를형목적어 서술명사 기능동사

나. [저는 [그 말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주어 틀형목적어 서술명사 기능동사

따라서 ‘이해(를)하다’와 ‘이해(가)되다’의 관계를 능동과 피동의 관계로 단순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물론 [~를 이해하다]와 [~가 이해되다]의 관계에서 목적어 ‘~를’이 주어 ‘~가’로 승격된 능동문과 피동문의 관계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다음이 그렇다.

(30) 그 말은 모든 이에게 이해(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에 더하여, [~는 ~가 이해(가)되다] 구문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 구성에서 ‘~는’ 성분은 사격어의 주제어 성분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다음 (31)은 정문이지만 (32)는 이상하기 때문이다.

(31) 가. 나는 네 말이 이해가 안 돼.

나. 할아버지는 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야.

(32) 가. *?네 말이 나에게 이해가 안 돼.

나. *?내 말이 할아버지에게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다.

따라서 ‘이해(가)되다’ 구성은 두 가지의 논항구조를 갖는 복합서술어로 기술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복합서술어로서 여기에는 가능(potential)의 양태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구성이다. 그것은 피동사 ‘보이다’가 보여주는 논항구조와 평행하다.

(33) 가. 나는_x 네 설명이_y 이해가 돼. <= 이해(가)되다(x, y)

나. 나는_x 네 설명을_y 이해할 수 있어. <= 이해(를)하다(x, y)

- (34) 가. 너는_x 저기 계시는 할아버지가_y 보이니? <= 보이다(x, y)
 나. 너는_x 여기 글씨를_y 볼 수 있니? <= 보다(x, y)

다른 하나는 한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복합서술어로서 그야말로 피동의 복합서술어로 해석되는 구성이다.

- (35) 가. 그의 말은_y (모든 이에게) 이해되었다. <= 이해(가)되다(y)
 나. 모든 사람은_x 그의 말을_y 이해하였다. <= 이해(를)하다(x, y)

- (36) 가. (선생님은_y) 왜 요즘 자주 안 보이세요? <= 보이다(y)
 나. (선생님은_x) 그 사람은_y 자주 보시나요? <= 보다(x, y)

다음의 구문에서 속격형으로 나타나는 ‘고향’, ‘할머니’, ‘영어’, ‘내’의 논항적 지위도 문제가 된다.

- (37) 가. 그냥 고향 생각이 나.
 나. 잘 자, 내 꿈 께.
 다.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었는데.

(37)에서 이러한 성분은 당당한 논항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격을 부정격(⊖)의 속격으로 실현된 대상 논항으로 볼 수 있다(이남순 1988). 이 논항 성분은 후행 서술명사와 하나의 말토막 단위를 형성한다. [고향 생각], [내 꿈], [영어 공부]가 하나의 말토막을 형성하지 중간에 휴지가 개입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구문 형식이 타동 구문에서 매우 빈도가 높고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형식이란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¹²⁾ 다음 구문들의

12)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어의 기능동사 구문에서 대상역(theme)을 부여 받는 논항

자연성을 비교해 보자. 특히 휴지에 의한 분리로 독립적인 성분으로 인식되는 구성과 비교해 보자. [[고향#] [생각]나-], [[영어#] [공부]하-].

- (38) 가. 나는 내년에 영어 공부하러 호주에 갈 거야.
 나.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할 거야.
 다. 나는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했다.
 라. *?나는 영어의 공부를 한다.
 마. *나는 영어의 공부했다.

- (39) 가. 너는 그 친구 생각이 나니?
 나. 너 그 친구(가) 생각나니?
 다. 너도 그 친구가 생각이 안 나니?
 라. *?너는 그 친구의 생각이 나니?
 마. *너는 그 친구의 생각나니?

따라서 기능동사 구문에서 서술명사의 타동성은 세 가지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 \emptyset_1 -를형 성분’으로 실현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 \emptyset_1 -가형 성분’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마지막은 ‘ \emptyset_1 - \emptyset_2 형 성분’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마지막의 실현 방식에 소위 속격조사 ‘의’가

이 속격 목적어로 나타나는 구문이 가장 무표적인 구문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순서로 유표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 가. 고향 생각이 나다.
 나. 고향이 생각나다.
 다. 고향이 생각이 나다
- (2) 가. 영어 공부를 하다.
 나. 영어를 공부하다.
 다. 영어를 공부를 하다.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서술명사의 성격에 따라 그것이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않거나 결정된다는 것이다.

- (40) 가. 나는 어린 시절을 기억(을) 한다.
나. 나는 어린 시절이 기억(이) 된다/난다.
다. 나는 [어린 시절 기억](이) 난다.

- (41) 가. 나는 그의 말을 이해(를) 했다.
나. 나는 그의 말이 이해(가) 됐다/갔다.
다. *나는 [그의 말 이해](가) 됐다/갔다.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은 마지막 속격 구성으로 실현되는 기능동사 구문은 주로 일본어의 논의를 따라서 조사 ‘의’와 관련된 것으로 기술되었는데(채희락 1996, 멜축 2015),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실제 모습이 이러한 기술에 의해 호도되거나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 (42) 가. 존이 언어학의 공부를 했다. (멜축 2015)¹³⁾
나. 철수가 영희에게 미희의 소개(를) 했다. (채희락 1996)

위 문장은 사실 자연스럽지 않다. 본고는 이러한 문장을 비문으로 본다. 오히려 다음 구문의 형태로 실현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13) 이 문장에 비문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원래의 논의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필자라면 ‘*’를 붙였을 것이다. 멜축(2015)에서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구문은 ‘존이 언어학을 공부를 했다’와 ‘존이 언어학+_θ 공부를 했다’이다. 그리고 관련 구문으로 ‘존이 언어학이 공부가 되었다’가 언급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정문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 (43) 가. 철수는 언어학 공부를 했다.
- 나. 철수는 영희에게 미희 소개를 해 주기로 했다.

다음의 타동 기능동사 구문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어떤 구문이 가장 무표적인 형태인가를 알 수 있다.

- (44) 가. DNA 구조 연구를 하는 데 한평생을 바쳤다.
- 나. DNA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이 기본이 된다.
- (45) 가. 고향 생각이 나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 나. 고향이 생각나거든 나에게 전화를 하거라.
- (46) 가. 어제는 돌아가신 엄마 꿈을 꾸었다.
- 나. 뭐 어젯밤에 나를 꿈을 꾸었다고?

그렇다면 앞의 (18)에서 제시한 제2, 제3 유형의 기능동사 구문에서 논항 NP₁과 NP₂의 통사적 기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18)을 다시 (47)로 제시한다.

- (47) 제1유형: 철수는 영어를 연구(를) 했다.
- 제2유형: 꼬끼리는 새끼가 생각(이) 났다.
- 제3유형: 나는 그 말이 이해(가) 간다.

따라서 제2, 제3 유형의 기능동사 구문에서 나타나는 두 논항 성분 중 어느 것이 진짜 주어냐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타동문이 서술어의 어휘 부류에 의해 ‘가형 목적어’ 구문과 ‘를형 목적어’ 구문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어’에 대한 진단법을 통해 증명한 바가 있다는 것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목정수 2013b, 2014a). 기능동사 구문에 똑같이 적용해 보면 되는 것이다.

한국어의 ‘주어’ 판별의 가장 든든한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견들이 존재하지만, 주체 존재 선어말어미 ‘-시-’와의 호응여부를 들 수 있다. (48), (49)에서 기능동사에 실현되는 ‘-시-’와 연계되는 것은 제1 명사구이다. 제2 명사구는 ‘-시-’와 무관하다.

- (48) 가. 나는 할머니가 생각이 났다/*나섰다.
 나. *나는 할머니께서 생각이 났다/나섰다.
 다. 할머니는 고향이 생각이 나시는 모양이다.
 라. 할머니께서는 고향이 생각이 나시는가 봐요.

- (49) 가. 나는 할아버지가 이해가 간다/*가신다.
 나. *나는 할아버지께서 이해가 간다/가신다.
 다. 할아버지는 내가 이해가 안 가신단다.
 라.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이해가 안 가신대요.

이렇게 해서 ‘-시-’와 호응하는 성분을 주어로 판정하고 나면 나머지 성분은 그 주어 성분과 서술어와의 관계에 의해 그 통사적 기능이 주어가 아닌 그 무엇으로 정해진다. 본고에서는 이를 ‘가형 목적어’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성분은 모두 주어로 분석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¹⁴⁾

14) ‘가’를 주어 표지로 보는 입장에서는 ‘-시-’와 일치하는 명사구를 주체어로 보고 ‘-시-’를 주체어 존재 요소로 보게 된다. 한국어 문장을 ‘주제(topic)+평언(comment)’의 구조로 보려는 시도와 맞물린다(고영근·구본관 2008, 강창석 2008).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소위 이중 주어 구문에서 나타나는 ‘-시-’ 일치 현상과 전형적인 타동 구문에서 나타나는 ‘-시-’ 일치 현상을 ‘간접존대’와 ‘직접존대’의 이질적인 현상으로 만들

- (50) 가. 할아버지(께서)는 잡지를 많이 보신다.
 나. 할아버지(께서)는 뱀이 무서우시단다.
 다. 할아버지(께서)는 돈이 많이 있으시다.
 라. 할아버지(께서)는 머리가 무척 크시다.
 마. 할아버지(께서)는 커피가 아직 안 나오셨나 보다.

Ⅲ. 한국어 기능동사 구문의 제2 논항의 격 할당: ‘가형 목적어’와 ‘를형 목적어’

앞장에서 우리는 기능동사 구문도 일반 서술어와 마찬가지로 목적어로 (주격)조사 ‘이/가’와 (대격)조사 ‘을/를’로 실현된 명사구를 취하는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대칭성이 주어 인칭 제약을 보이는 주관/심리동사 구문에서도 똑같이 보인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어에는 두 종류의 목적어가 대칭적으로 존재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51) 가. [나는 [소주가 싫다]].
 주어 가형목적어 서술어

뿐만 아니라(권재일 2012), 전형적인 타동 구문을 ‘주어’가 없는 문장으로 분석하게 만드는 곤경에 처하게 한다. 본고의 시각은 ‘주어(=주제어)+서술어(=평언)’의 구조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하므로 [철수는 [영희를 안는다]],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의 평행한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다. 앞 문장들의 ‘영희를’, ‘호랑이가’, ‘코가’ 성분은 모두 서술어와 함께 서술어구를 구성하는 비주어 성분으로 분석된다.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따라 조사 ‘가’와 ‘를’의 선택이 달라질 뿐, ‘가’가 붙었다고 주어이고 ‘를’이 붙었다고 목적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서술절이 부정되고 따라서 ‘-시-’는 주어 존재 요소로 간명하게 정의된다(목정수 2013, 목정수 2014a, 목정수 2017).

나. [나는 [소주를 싫어한다]].
 주어 를형목적어 서술어

(52) 가. [철수는 [소주가 [싫대]].
 주어 가형목적어 서술어

나. [철수는 [소주를 [싫어한다]].
 주어 를형목적어 서술어

주관동사 ‘싫다’는 3인칭 주어 제약의 해소를 위해 ‘-(어)하다’ 구성이나 ‘-대’, 그리고 양태표현 ‘-은가 보다’ 등을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철수가 소주가 싫다’나 ‘철수는 소주가 싫어’가 아닌 (48가)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대’의 ‘-다고 해’에서의 문법화 문제나 목적어 인상 등의 문제는 논외로 한다.

‘생각이 나다’와 ‘이해가 가다/되다’에서도 인칭 제약 현상이 나타난다. 다음 예문에서 주어 논항이 외현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평서문에 서는 1인칭 주어가,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가 디폴트로 주어진다.

(53) 가. 절로 고향이 생각(이) 나는군요. (= > ‘나는/저는’)
 나. 정말 그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 > ‘당신은/선생님께서’)

양태 관련 어미가 덧붙는 경우에는 3인칭 주어 구문으로 해석된다.

(54) 가. 고향이 생각(이) 나신다네요. (= > ‘그 사람은’)
 나. 그 말이 이해(가) 가신답니다. (= > ‘그 분은’)

이러한 구조를 염두에 두면, 다음처럼 논항이 외현적으로 하나만 실현된

주관동사 구문도 똑같이 분석된다.

(55) 정말 떠나나가 싫습니다.

가형목적어 서술어 => 주어는 생략된 ‘나/저’

서술명사 ‘생각’의 기능동사 구문에서도 다음과 같은 구문은 같은 원리로 해석된다.

(56) 비가 오니까, 고등학교 친구가 생각 나.

가형목적어 복합서술어 => 주어는 생략된 ‘나’

(56)에서 ‘고등학교 친구가’ 성분이 복합서술어인 ‘생각(이) 나다’의 주어가 될 수 없다는 분석을 지지해 주는 현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서술명사와 기능동사의 결합에서 ‘서술명사’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보편성이다. 우리는 목정수(2016a)에서 한국어의 서술명사와 기능동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연어 구성에서 서술명사가 주어 자리에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다음 구성의 분석을 통해 보였다.

(57) 가. 비가 온다.

나. 잠이 온다.

‘비가 온다’ 구성에서 ‘비가’는 단순히 ‘온다’의 주어로 해석되기 어렵고, ‘잠이 온다’ 구성에서도 ‘잠이’가 ‘온다’의 주어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가 온다’ 구성의 주어는 외현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비인칭 주어가 되고, ‘잠이 온다’ 구성의 주어는 인물명사인 1인칭 명사가 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58) 가. [e [비가 온다]]

나. [나는 [잠이 온다]]

이를 ‘있다’ 기능동사 구문에 적용해 보면, ‘있다’가 기능동사로 쓰이는 경우에 소유동사로서의 ‘있다’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일반동사 ‘있다’는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으로 실현될 수 있다(목정수·이상희 2016).¹⁵⁾

(59) 가. 철수는 책이 있다.

나. 철수에게는 책이 있다. => 그런 책은 철수한테 없다.

목정수·이상희(2016)에 따르면, (59가)의 주어는 ‘철수는’이라는 성분이고 (59나)의 주어는 ‘책이’라는 성분이다.

이에 비해 ‘관련(이) 있다’, ‘약속(이) 있다’ 등의 기능동사 구문에서 ‘관련’과 ‘약속’은 ‘있다’의 비주어 논항으로만 해석된다. 비주어 논항 자리에 놓이는 서술명사 ‘관련, 약속’이 자체적으로 또는 기능동사와 결합하여 이루는 복합서술어로서 취하는 논항구조는 다음과 같다.

(60) 가. ‘관련’의 논항구조 R(x, y-와)

나. ‘약속’의 논항구조 P(x, y-와)

이러한 논항구조가 문장으로 실현될 때 주어 논항에 따라 ‘-시-’의 호응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사용되는 형태가 ‘있으시다’이다.

(61) 가. 이 문제는 그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

나. 할아버지(께서)는 친구 분하고 약속이 있으십니다.

15) 앞의 각주 5)를 참조할 것.

여기서 ‘Y-와’라는 논항은 서술어 ‘있다’가 취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이나 ‘약속’이라는 서술명사가 혹은 서술명사 ‘관련’/‘약속’과 기능동사 ‘있다’의 결합인 복합서술어가 취하는 논항이 바로 ‘Y-와’라는 공동격(comitative) 논항이다. (59)에서 보듯이, 일반 동사로서 ‘있다’는 그것의 논항으로서 두 논항을 취하는데, 그것의 실현 방식은 두 가지이다. 그런데 (61)의 구성은 존재 구문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없다.

(62) 가. *이 문제에는 그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

나. *할아버지에게/께는 친구 분하고 약속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서술명사 ‘관련’이나 ‘약속’은 ‘있다’의 주어로 해석되는 존재 구문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기능동사 구문은 ‘있다’가 소유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 한하여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개의 예를 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인기’는 여격어(dative)를 제2 논항으로 요구한다. ‘관심’도 마찬가지이다.

(63) 가. ‘인기’의 논항구조: R(x, y-에게)

나. ‘관심’의 논항구조: I(x, y-에)

(64) 가. 우리 할아버지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으시다/*계시다.¹⁶⁾

16) ‘전화가 오다’도 기능동사 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이유도 같은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전화가 오다’의 연어 구성의 주어는 인물명사 ‘나’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나에게’나 ‘할아버지에게/께’의 여격어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1) 가. 나는 요즘 이상하게 전화가 오지 않는다.

나. 할아버지, 학교에서 전화 오시면, 저 대신 꼭 받아주세요.

나. *우리 할아버지에게/께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으시다.

다. 우리 할아버지는 음악에 관심이 있으세요.

라. *우리 할아버지께는 음악에 관심이 있으세요.

‘인기(가) 있다’가 ‘인기있다’로, ‘관심(이) 있다’가 ‘관심있다’의 합성동사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것이 동사구를 이루는 구성이기 때문이지, [주어+동사]의 소위 서술절을 이루기 때문이 아니다.

(65) 가. 슈퍼주니어는 중국 사람한테 인기있다.

나. *슈퍼주니어에게는 중국 사람한테 인기있다.

다. 나는 음악에 관심있다.

라. *나에게는 음악에 관심있다.

IV.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어의 타동 구문을 두 유형—세부적으로는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 ‘를형 목적어’를 취하느냐 ‘가형 목적어’를 취하느냐는 서술어의 의미유형에 달려 있다는 점, 즉 원심/외향 장력(centrifugal force)의 서술어—우리의 용어로는 ‘행위동사’—는 ‘를형 목적어’를 취하고, 구심/내향 장력(centripetal force)의 서술어—우리의 용어로는 ‘기술동사’와 ‘주관동사’—는 ‘가형 목적어’를 취한다는 점을 밝혔다.¹⁷⁾

(2) 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전화 오셨어요.

나. *할아버지, (할아버지께) 전화 오셨어요.

17) 논항을 두 개 갖는 타동사 부류를 [+통제성] 자절이나 부사 ‘고의로/일부러’와의 공기 관계를 통해 ‘를형 목적어’ 요구 타동사와 ‘가형 목적어’ 요구 타동사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다.

더불어 ‘가형 목적어’를 취하는 일반 타동사와 평행하게 기능동사 구문도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기능동사 구문에서 서술명사는 주어 자리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와 연계되는 것으로서 서술 명사 또는 서술명사와 기능동사의 연어 구성이 요구하는 제1명사구 주어 논항은 여격어로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고, 이는 또다시 서술명사는 주어 자리에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기능동사 구문의 본질이 밝혀지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실제 자연스런 문장을 그리고 일관된 설명을 바탕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즉 ‘가형 목적어’ 성분과 관련되어 왜 수많은 오류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가형 목적어’(또는 보어)로 실현되는 한국어의 타동 구문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의의는 앞으로 한국어 교육계가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를 던진 동시에, 그 가능성을 유형론적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
- (1) 가. 나는 일부러 철수를 꼬집었다.
 나. *나는 의도적으로 호랑이가 무서웠다.
 다. *철수는 고의로 키가 컸다.

【참고문헌】

- 강창석, 『국어의 문장구조에 대하여』, 『인문학지』 37,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 고광모, 『주격조사 ‘-가’의 발달』, 『언어학』 68, (사)한국언어학회, 2014.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 권재일,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2012.
- 김민국, 『한국어 주어의 격표지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남기심·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93.
- 멜츨(Mel'čuk, I.), 『“Multiple Subjects” and “Multiple Direct Objects” in Korean』, 『Language Research(어학연구)』 51(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5.
- 목정수, 『한국어 문법론』, 월인, 2003.
- _____, 『선어말어미 ‘-시-’의 기능과 주어 존재』, 『국어학』 67, 국어학회, 2013.
- _____, 『한국어 서술절 비판: 통사 단위 설정을 중심으로』, 『현대문법연구』 76, 현대 문법학회, 2014a.
- _____, 『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태학사, 2014b.
- _____, 『언어유형론과 국어학: 그 빛과 그늘』, 『언어유형론 연구』 1-1, 한국언어유형론학회, 2014c.
- _____, 『알타이제어의 구문 유형론적 친연성 연구: 한국어의 타동 구문을 중심으로』, 『한글』 307, 한글학회, 2015a.
- _____, 『한국어 통사론에서의 융합의 길: 조사와 어미의 신질서를 찾아서』, 『국어국문학』 170, 국어국문학회, 2015b.
- _____, 『비인칭 구문의 유형론』, 『한국언어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여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의 언어학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전망하다』, (사)한국언어학회, 2016a.
- _____, 『한국어의 진성 주어를 찾아서』, 『어문연구』 1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b.
- _____, 『높임말을 다시 생각한다: 이른바 ‘사물 존재’ 현상에 대한 상념』, 『새국어생활』 27-1, 국립국어원, 2017.
- 목정수·이상희, 『문두어격어 구문의 정체: 여격주어 설정은 타당한가?』, 『형태론』 18-2, 2016.
- 박진호, 『속격에서 주격으로』, 『한국사전학회·한국언어유형론학회 2016 여름 학술대회 언어적 다양성과 다문화시대의 사전』, 한국사전학회, 2016.

- 심유경, 『한국어 문두 여격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연재훈, 『국어 여격주어 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 28, 국어학회, 1996.
- _____,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2011.
- 우순조, 『활용 개념과 소위 ‘이다’와 관련된 오해』, 『한국어 계사 ‘-이(다)’의 쟁점 워크숍』, 서울대 언어교육원/세종전자사전개발연구단, 2005.
- 이남순, 『국어의 부정격과 격표지 생략』, 탑출판사, 1988.
- 채희락, 『“하-”의 특성과 경술어구문』, 『어학연구』 32-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996.
- 최기용, 『“-이다”의 ‘-이’는 주격 조사이다』, 『형태론』 3, 2001.
- 허웅, 『국어학: 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1983.
- 홍재성,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탑출판사, 1987.
- 松本克己, 『世界言語への視座 歴史言語學と言語類型論』, 東京: 三省堂, 2006. (박종후 역(2016), 『역사언어학과 언어유형론』, 역락.)
- 松本克己, 『世界言語のなかの日本語: 日本語系統論の新たな地平』, 東京: 三省堂, 2007. (박종후 역(2014), 『언어유형지리론과 환태평양 언어권: 유형지리론으로 탐구하는 언어의 친족 관계』, 역락.)
- Comrie, B, S. Matthews and M. Polinsky, *The Atlas of languages*, Facts On File, Inc, 1996.
- Dixon, R. M. W., *Basic Linguistic Theory Vol. 1: Method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2010a.
- Dixon, R. M. W., *Basic Linguistic Theory Vol. 2: Grammatical Top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b.
- Haspelmath, M. et al.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Li, C. N. and S. A. Thompson,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C. N. Li (ed), *Subject and Topic*, Academic Press, 1976.
- Næss, Åshild, *Prototypical Transitivit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7.

- Ramat, P., “Is a holistic typology possible?”, *Folia linguistica* 20, 1986.
- Rivas, J., *Clause Structure Typology: Grammatical Relations in cross-linguistic perspective*, TrisTram, 2004.
- Shibatani M., “Non-canonical constructions in Japanese”, Aikhenvald, Dixon and Onishi (eds.), *Non-canonical Marking of Subjects and Object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1.
-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WALS), <http://wals.info/>

Abstract

Case Realization of Arguments in intransitive support verb constructions in Korean: critique of the dative subject

Mok, Jung-soo

This paper aims to make several suggestions. First, the education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can be well guided by linguistic typology and contrastive linguistics. Second, linguistic typology should be based on the correctly described data of the individual languages. Third, Korean linguistics also should be objectively described in terms of distribution so that it can contribute to the typology of languages of the world.

Recently the focus of the linguistic typology is putting on linguistic type, according to which languages of the world are sorted into ‘nominative-accusative’, ‘ergative-absolutive’, ‘active-inactive’, ‘tripartite’, ‘neutral’, ‘focus’, ‘direct-inverse’ patterns.

By the way, most of Korean action verbs show the characteristics of accusative pattern, eg. ‘철수는 영화를 안왔다’ while it has another type of transitivity, that is, the bi-valent constructions with descriptive and subjective verbs: ‘코끼리는 코가 길다’ and ‘나는 호랑이가 무서워’. Provided with this, we are obliged to divide/subclass the accusative type, namely ‘split-O’ so that we can include Korean transitive constructions into the linguistic type of transitivity.

We reexamined the so-called support verb constructions in order to check the justification of applying the concept ‘non-nominative subject’ to Korean. We concluded that the ‘dative subject’ is not true subject of the so-called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but just oblique constituent. The true subject of the so-called support verb constructions is realized in the form of ‘NP1-eun/neun’ or ‘NP1-i/ga’. And we proved that the second constituent ‘NP2-i/ga’ in those constructions could be analyzed object complement,

revealing the misconception of 'predicate clause'.

Key Word : action verb, descriptive verb, education of Korean, linguistic typology,
Korean linguistics, non-nominative subject, object, predicate clause,
predicate phrase(=verb phrase), psychi/subjective verb, subject, transitivity

목정수

소속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mjsmok@uos.ac.kr

이 논문은 2017년 4월 26일 투고되어
2017년 6월 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6월 9일 게재 확정됨.